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청년정책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시작

부안군은 다양한 청년정책 소
통창구로서 정책 발굴은 물론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등의 활동
을 할 정책 파트너인 '청년정책
협의회 1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군은 5월 18일부터 3일간 부
안청년UP센터에서 부안군 청년
정책협의회 1기 역량강화교육
을 열고 청년협의체의 활동 방
향(work-way)과 비전을 스스로
수립한다.

부안군 청년정책 협의체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부안군 청년
정책협의회 1기'를 모집하여 28
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의 임기
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처음 출범한 '부안군 청년정
책협의회'는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청년들과 행정의 가
교역할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
여하는 청년 활동 기구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위험물 운반
자격 제도 본격 시행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
격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
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
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
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화물트
럭 운전자를 말하며, 이러한 위
험물을 운반하기 전에 해당 운
전자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
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
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
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위험
물 운반자 갑급교육을 이수해
야 하며 갑급교육은 한국소방
안전원(www.kfsa.or.kr)에서 신
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 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초록빛 힐링’ 고창청보리밭

올해 16만명 다녀가 성황리 막 내려



2022년 고창 청보리밭에 16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 떨치
GO! 마스크 잊GO! 청보리밭 GO!'라는
주제로 지난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16일간 20만여명의 공음면 학원관광농
장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고창청보리
밭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창청보리밭축제는 적게는 몇억에
서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많은 축
제 가운데 1억원의 적은 예산을 투입
해 축제기간동안 16만여명이 방문하였
고, 6억6400만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
급효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경관농업축제다.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실외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고, 주말 사이 날씨가 화창해 가족
단위는 물론 전문 여행사 나들이객이
몰린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말
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며 진행됐다.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와 먹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축제로 평가받았다.

고창군 축제 관계자는 “적은 예산에
도 불구하고 고창군 축제위원회,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축제를 성공
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경관농업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제가 끝난 후에도 학원관광
일대는 6월 초까지 황금빛 보리 들녘
이 펼쳐지며, 8월 초에는 해바라기, 9
월에는 메밀밭으로 꾸며져 청보리와
는 또 다른 감동을 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빈틈없는 방역 활동 강화를”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 선거 중립 의무 준수도 ‘당부’

유진섭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철저
한 개인 방역 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16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
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
은 아니다”라며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 복지시

설 운영 정상화 등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
편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리 원칙
에 입각해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 공직자로서 불
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관리와 선거 중립의 의
무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발전
의 밑거름이 될 국가 예산확보에 더욱
집중해 줄 것도 지시했다.

또한 하절기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안전 취약 시기에 대비해 재난취약시
설을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
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분식회계 의혹 직접 밝혀야”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김민영 후보의 직접 입장표명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무소속
정읍시장 김민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
의원)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부당성
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윤
준병 공심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K(김민영) 후보의 컷오프 공천
배제 사유 중의 하나인 정읍산림조합
장 시절의 분식회계 유무 및 배임 여
부'를 검증하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민영 예비후보가 직접적
인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 비용을 축소한 분식회계(결산)를
하였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윤 위원장은 감사결과표를 공개했다.

또 하나는 “2018년 출자배당금 지급
이 당해연도의 실제 당기순이익에 따
른 배당이 아니고 전연이월잉여금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출자배당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출자금 과
배당’에 해당하며 산림조합중앙회도
초과배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분식회계로 출자배당금이 초과 배당
되었고 그로 인해 정읍산림조합에 손
실이 발생한 만큼 k조합장의 배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k
무소속 후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
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회계에 아
무런 문제가 없는데, 증거도 없이 음
해세력의 말만 믿고 자신을 민주당 공
천에서 배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해 왔다.”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
사결과에서도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이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차 K후보의 공천배제
사유를 설명하며 K후보의 주장을 반
박했다.

이학수 후보는 “이런 윤 위원장의 K
후보 공천배제 사유 설명에 대해 이제
는 당사자인 K(김민영) 예비후보가
답해야 한다.”면서 “선출직으로 나선
만큼 본인에 대한 의혹은 본인이 직접
유권자인 시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바
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사람 키우기’ 공약 발표

‘한번 더 높을
고창’을 위해 재
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가
영유아, 아동, 청
소년, 학부모를
위한 공약을 발
표했다.



높이 시설 ▲아동·청소년 학습비우
쳐 지원 ▲산후조리원 신축 및 임신부
0원 택시운영 ▲폐작한 유아학습공간
시설 개선 지원 강화 ▲효(孝) 인성교
육 ▲학교,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지 ▲메타버스 교육 동영상 보급 등
이다.

한편 유기상 후보는 민선 7기 재임
기간 ‘활용석실학도서판’ 공공도서관
신축, 예체능, 농생명, 다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재능 발굴 지원, ‘방과후
마을 학교 지원’, ‘초등학생 책가방
구입비지원’,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365 인문학도시’, ‘예술·체육 꿈나
무 육성지원’, ‘임산출생 축하용품 지
원’, ‘분민진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공
약이행을 한 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참뽕농가, “무소속 김성수 후보지지”

부안군 뽕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종인) 농가들
이 16일 무소속 김성수 부
안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
문해 김 후보를 지지를 선
언하며, 참뽕 오디의 활성화
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
혔다.



특히 뽕영농조합법인 김
종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농가 음면대
표 13명은 “참뽕 오디의 제2 전성기가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농업을 가장
잘 알고 생산부터 가공, 판로까지 책
임질 김성수 후보를 부안군수로 적극

지지한다”고 뜻을 전달했다.

이날 법인은 전국 유일의 지리적표
시 상품인 부안참뽕이 행정의 무관심
으로 쇠퇴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과 유통센터 설치 및 지원, 냉동

시설 설치 등을 김 후보에게 건의했
다.

김성수 후보는 “민선 3기 부안군의
회 의원으로 활동한 당시 참뽕사업 프
로젝트를 함께 지원했다”며 “부안군의
대표 특화작물인 참뽕오디는 당도가
높고, 향신화 가능성이 뛰어난 안토시
아닌이 풍부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에 당선되면 뽕 농사를
짓고 있는 500여 농가와 부안 참뽕 제
2의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뽕영농조합법인 농가들
은 35년동안 지역 농업인과 함께한 무
소속 김성수 후보를 적극적인 지지와
부안군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